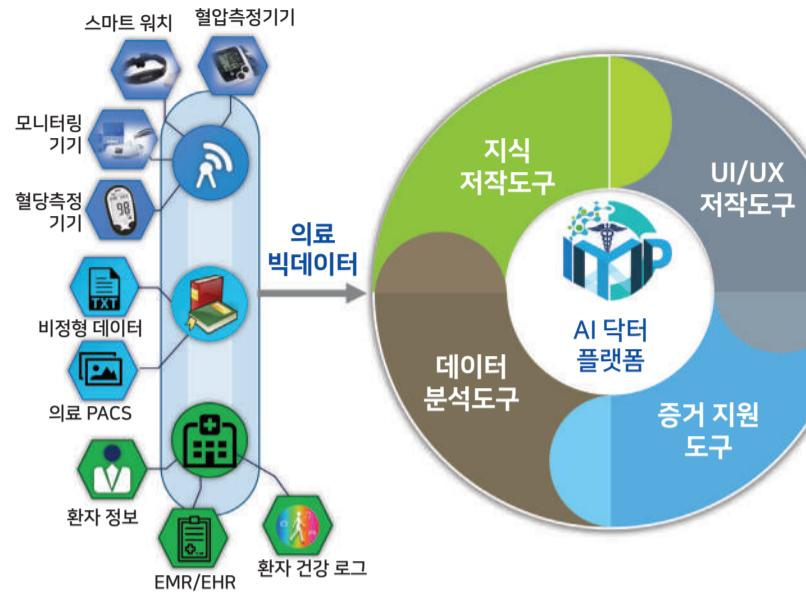


'AI 닥터', 말레이시아 상용화 앞둬



문화령 기자 moonbym@khu.ac.kr

우리학교 이승룡(컴퓨터공학) 교수 연구진이 개발한 지능형 의료 플랫폼 'AI 닥터'가 말레이시아 의료시장에 진출한다. 지난달 9일 우리학교 컴퓨터공학과 지능형 의료 플랫폼 연구센터는 내년 말 말레이시아 최고 병원인 '말라야 의과대학병원'에 AI 닥터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닥터는 의사를 돋는 보조수단으로, 의료 행위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질병 진단, 치료, 사후 관리 등 전반적인 의료 행위를 돋는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의사가 놓치기 쉬운 정보를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AI 닥터가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데에는 이 교수가 유럽연합(EU)에서 수주를 받아 진행한 국제협력과제가 큰 역할을 했다. 이 교수는 올해부터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태국을 대상으로 AI 닥터 플랫폼과 서비스를 교육해왔다. 그 중 말레이시아 말라야

의과대학병원이 AI 닥터를 현지에 맞게 적용하고 싶단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보였다. 이에 우리학교 연구센터는 지난 5월부터 말레이시아 연구진과 교류하며 현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파악해 이를 동남아시아 병원에 보급하기로 협의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우리학교 지능형 의료 플랫폼 연구센터와 말라야 의과대학병원은 AI 닥터 지식재산권 계약을 체결해 이를 말레이시아에 상용화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지능형 의료 서비스가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마련됐다.

AI 닥터를 개발한 지능형 의료플랫폼 연구센터는 센터장 이 교수를 필두로 총 17명의 참여 교수·의사·기업과 총 39개의 대학·기업·병원으로 이뤄져 있다. 국내 유수의 의료진과 협력해 의료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결과다.

AI 닥터 플랫폼은 의료지식 획득 및 추론, 지식 엔지니어링, 의료 빅데이터 분석 및 저장, 적절한 사용 환경 관리, 의료 서비스 통합이라는 5가지 단계를 거쳐 구성된다.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에 환자의 데이터 및 정보가 입력되

면 AI 닥터는 의료진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헬스케어 플랫폼 분야의 선두 주자인 이 교수는 "지난 1970년대부터 존재하던 의료전문가 시스템을 보다 확장시켜 AI 닥터를 만들게 됐다"며 "의료, 법률,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현재 인류가 누리고 있는 서비스에 인공지능이 활용돼 그 서비스의 내용을 혁신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령화 시대가 되면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비 절감을 위해 AI 닥터가 있어야 한다"며 "의사가 10가지 일만 할 수 있을 때 인공지능 의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30가지, 100가지 일을 수행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현재 AI 닥터가 의사를 대체하기보다 지원 및 보조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심부전 진단, 갑상선 치료, 뇌전증 치료, 당뇨투석환자 관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만성당뇨 관리가 가능하다"며 "말레이시아 연구진과 공동개발 중인 허리 통증 진료 분야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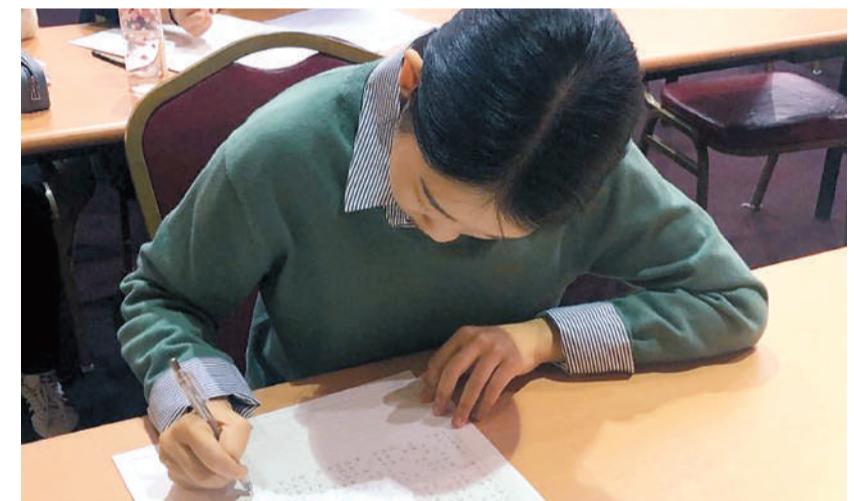
'후마 글쓰기의 날' 행사 글쓰기로 하나 되는 모습 펼쳐져

장보경 기자 jbg6987@khu.ac.kr

김소라(철학 2017) 씨는 "기후 변화와 미래 세대를 주제로 나의 생각을 표현해보고 싶었다"고 전했다. 김가영(치의예 2019) 씨는 "예전부터 기후 변화에 대해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그 해결 방안을 쓰려고 하니 어려웠다"며 "이번 글쓰기를 계기로 기후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 고 말했다.

행사 시작에 앞서 후마 이규진 교수는 "고독한 글쓰기에서 벗어나 광장에서 타인과 함께 글을 쓰고 이로써 참가자들이 하나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후마 이영준 학장은 "호연지기는 대학생들이 반드시 길러야 하는 정신"이라며 "좋은 가을날 여러분들의 글 속에 미래의 비전이 넓게 펼쳐지기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첫 번째 행사는 백일장은 '기후 변화와 미래 세대'를 주제로 한 자유 세이와 서평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서평 도서로는 배병삼의 <맹자, 마음의 정치학>과 프리초프 카프라의 <우고 마테이의 <최후의 전환>>이 제시됐다.



이날 행사에서 백일장에 참가한 학생이 글을 쓰고 있다.

1면에서 이어짐

이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해 총장후보를 추천했다는 점이 의미 있었고 완벽한 제도는 아니었지만 총장선출 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며 "이러한 참여와 학생들의 관심이 보다 확대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전완주(일본어학 2015) 회장은 "다른 구성원에 비해 모집단이 큰 학생의 투표율이 40% 대에 달한 것은 학생들의 고무적인 결과로, 새로운 총장과 함께 할 새로운 경희가 더 중요한 만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변화를 도모해야겠다"고 말했다.

직원 위원회였던 제1노조 한상 위원장은 "70년 만에 구성원 손으로 총장을 뽑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대학의 품격에 어울리는 준비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특히 의견을 해결하는 방식에 아쉬움이 남

후보자 3인 추천으로 총추위 활동 사실상 마무리

교수의회 "김도연 예비 후보자 폄하하거나 배제하려던 것 아냐"

구성원 "투표율은 새 총장에 대한 기대 나타낸 것"

지만 높은 직원 투표율이 변화할 경희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만큼 선임될 총장께서 향후 행정 운영에서 직원도 고려해줄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수의회 강재식 의장은 "그동안 사상 첫 민주적 총장 선출이라는 큰 이슈를 따라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총추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문제들을 회의를 통해 잘 해결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대했던 것보다 높은 투표율에 전 경희 구성원의 기대와 열망이 나타난 것 같아 그 결과가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8일 사퇴한 김도연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분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게 평가한다"며 "훌륭하신

분이 경희의 발전을 위해 총장 선거에 출마해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의회가 개인을 폄하하거나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이라며 "치밀한 준비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민주적 총장 선출이었던 만큼 훈련한 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운 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마지막 말을 전했다.

한편 총장선임프로세스는 그 마지막 단계인 이사회 선임만을 남겨둔 상태다. 법인 즉 관계자에 따르면 총장 선임에 관한 안건은 차기 이사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차기 이사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구성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총장후보추천위원회입니다.

11월 14일 열린 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구성원 투표 결과에 따라 총장 후보자 3인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기호순).

기호 3번 황주호
기호 6번 한균태
기호 7번 정성구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위의 후보자 3인을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선거에 입후보하신 예비 후보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후보자 신출에 참여해주신 구성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장 선출절차를 통하여 경희대학교가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이명웅

지난 15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명웅 위원장의 명의로 최종후보 3인을 발표하는 공문을 메일을 통해 구성원에 발송했다.